

초등학생의 따돌림 현상과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 경 순*·박 성 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동은 점차 가족 이외의 성인들이나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시계를 넓혀나간다. 특히 아동들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한다(양희정, 2000). 유아기에 비교적 약하고 일시적이던 또래관계는 아동기에 들어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지면서 친구관계로 발전해 간다. 그리고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 작용 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한미현, 199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미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Hartup, 1983) 청년기에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사실상 그 이전에 배양되어 아동기에 이미 기초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기가 쉬워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동기는 문제의 예방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한미현, 1996).

최근 집단 따돌림이 중·고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살하는 사건들이 간간히 보도 되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따돌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점을 이루며 고등학교에서 감소하게 되고(Banks,1999)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감정적인 상처를 오랫동안 희생자들에게 남기게 된다(Olwuse, 1993). 따돌림의 희생자들은 학업과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성적인 장기 결석, 학업수행 저하, 증가된 두려움, 외로움, 동료로부터의 버림, 아동·청소년 자살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Roberts& Coursol, 1996). 따돌림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요한 따돌림의 요소는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위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공포, 괴롭힘, 학대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Banks, 1999).

따돌림에 대한 취약성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부적응적인 특성들의 기저에 있는 잠재적인 대인관계 취약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취약성은 대인관계 이론편에서 흔히 강조되는 원가족내의 관계 패턴이 이후 성인의 대인관계에까지 반복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즉,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보살핌이 없었거나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뀐 경우, 애착대상과의 때 이른 분리와 같은 심리적 상처를 경험한 경우, 과잉 보호나 잔소리 속에서 양육된 경우 등이 있다(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높

* 혜천대학 간호학과 교수

** 청주과학대 간호학과 시간강사

게 지각한 아동은 낮게 지각한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더 적게 하였고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경우 문제행동의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정세용, 1995)

따돌림 현상은 고학년에서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면서 저학년 층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더 큰 문제로 드러나기 까지 교사나 부모에게 노출이 안된다는 점에서 따돌림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 많은 고통을 혼자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가해자들의 경우 죄책감 없이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어쩔 수 없이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예방을 위한 학교차원, 부모의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중단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피해자는 역시 따돌림의 은밀한 특성으로 인해 교사, 친구,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은 우리 나라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따돌림의 피해와 가해경험이 이후의 발달과정에서 정서, 행동, 대인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만큼 따돌림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서구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집단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어 실태조사나 면접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돌림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차원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들이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뚜렷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구분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따돌림의 가해,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가족-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차이와 따돌림의 가해, 피해경험과 가족-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 1)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의 정도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집단 따돌림의 가해, 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집단 따돌림

이론적 정의: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고의적인 괴롭힘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성 지어지는 대인간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한 명의 개인 가해자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Olweus, 1994).

조작적 정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험은 Olweus(1993)의 가해-피해 설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를 이병두(2000)가 번안한 것을 피해와 가해 경험의 설문지만 사용하였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이론적 정의: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조작적 정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로, 민하영(1991), 김현정(1995)등이 번안하고 노길미(1998)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3) 사회적지지

이론적 정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한미현, 1996).

조작적 정의: 사회적 지지는 Harter(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을 이은해(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집단 따돌림은 서구에서 'bullying', 'mobbing', 'victimization', 'social exclusion', 'harrasment', 'peer abuse' 등으로 명명되고 일본의 'ijime', 국내에서의 왕따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보면 Olweus(1994)는 Bullying이나

Victimisation을 한 무리 혹은 더 많은 수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부정적인 행위에 노출되어진 학생으로 정의하였으며 가해자와 희생자 사이에는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가 있으며 의도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Banks(1999)는 괴롭히기, 조롱하기, 때리기, 밀치기, 발로차기 등의 직접적인 행동으로써의 따돌림이나 고의적인 거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간접적인 행위로써의 따돌림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전형적으로 남학생들이 직접적인 따돌림에 참여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유언비어나 거짓말을 퍼뜨리기, 말로 괴롭히기, 사회적 고립을 억지로 강요하기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Boulton과 Underwood(1992)는 따돌림 행위는 신체적인 따돌림(때리기, 발로차기, 꼬집기, 금품 갈취나 소유), 언어적인 공격(별명 부르기, 잔인하게 괴롭히기, 조롱하기, 위협하기)을 포함한 행동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Crick 와 Grotpeter (1995)는 사회적 배척이나 치명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등을 통해 상처를 주는 교묘한 조작을 통한 관계적인 따돌림이나 공격을 보고하였다. Argenbright와 Edgell (1999)은 따돌림 행위의 주요 목적은 신체적인 위협, 조롱, 강탈, 동료 그룹에서의 제외, 별명 부르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Crick 와 Bigbee(1998)는 관계적인 공격성의 경우 후에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따돌림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는 따돌림 피해자들은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종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Austin & Joseph, 1996; Craig, 1998; Salmon, James, & Smith, 1998) 아동기때 따돌림으로 고통받았던 성인에게서 더 낮은 자존감과 빈번한 우울이 발견되며(Olweus, 1993)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치감과 사회적 수용성, 소외감, 위축, 낮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다(이춘재, 곽금주, 2000).

따돌림 가해자의 경우를 보면 외국의 연구결과에서 8세 이후부터 가해자가 된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30세까지 다른 청년들보다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으며(Mulrine, 1999) 12세에서 15세 사이의 가해자를 24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60%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는(Argenbright & Edgell, 1999) 보고를 볼 때 아동기의 따돌림 가해 경험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행동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은 공감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은 성향을 보이며 인기도 면에서는 그들이 싫어하는 왕따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친구들에게 평균적인 인기 이상을 갖는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기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병두, 2001; 이춘재, 곽금주, 2000). 반대로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아동일 경우에도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또한 교사나 부모의 지지가 적을수록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김은경, 2000).

아동기 초기에 보이는 외향성, 집중문제, 충동성 등의 행동문제는 후에 동료들에게 당하는 희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행동문제는 동료들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을 예측하므로 행동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사회적 통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초기 교우관계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보호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우관계는 발달 면에서 볼 때 행동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의 사회적 통합성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Schwartz 등, 1999). 친구관계는 부모나 형제들의 비자발적인 관계와는 달리 자발적인 상호 의존관계라는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며, 친구는 가족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임에 틀림없다(한미현, 1996).

가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충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박소춘, 2000). 따돌림 희생자들은 의사소통기술이나 문제해결 기술이 부족한 미성숙한 아이들로 어머니의 수용성과 자율성이 낮고 거부, 통제가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전재천, 2000) 외국의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의 경우 학교에서는 외롭고 친구가 없으나 그들의 부모, 특히 어머니와는 밀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Olweus, 1994). 따돌림의 가해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손 가정이었다(이병두, 2000) 가해자, 가해-피해자의 가족들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역기능적인 기전에 의해 특정 지위전 경우가 많다(Batsche & Knoff, 1994). 또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다시 말해 적대적, 감정적 폭언은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고 반사회적 행동까지 야기할 수 있다(안진영, 1992).

이상에서 볼 때 따돌림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이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돌림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원인규명과 예방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집단 따돌림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차이와 따돌림의 가해, 피해경험과 가족-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2곳에 재학하는 초등학생 5, 6학년 374명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2002년 1차 6월 10일부터 6월 22일, 2차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각반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 연구목적과 취지를 전달하게 하고 설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량은 총 446부였다. 불완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72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374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험은 Olweus(1993)의 가해-피해 설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를 이병두(2000)가 변안한 것을 피해와 가해 경험의 설문지만 사용하였다. 이 설문은 한 학기동안 따돌림을 당한 피해경험에 대한 11문항과 따돌림 가해 경험에 대한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피해나 가해 경험이 1= '한번도 없다'에서 5='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돌림 피해 문항점수가 12점 이상이면 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음을 의미하고 가해 문항 점수가 9점 이상이면 한번이라도 따돌림을 가한 경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을 나타냈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로, 민하영(1991), 김현정(1995)등이 번안하고 노길미(1998)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40문항으로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1, 3, 5, 7, 9, 11, 13, 15, 17, 19)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을 부여하였고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2, 4, 6, 8, 10, 12, 14, 16, 18, 20)에 대해서는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5점부터 '매우 그렇다'=1점으로 반대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는 평균점수를 내었다. 따라서 개인별 취득점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각각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를 갖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순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를 나타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Harter(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을 이은혜(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존중을 어느 정도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24문항으로 사회적 지지의 출처에 따라 부모지지 8문항, 친구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정말 그렇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전혀 아니다'=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 환산 항목(2, 4, 6, 8, 10, 12, 13, 14, 18, 20, 22, 24)은 반대로 점수가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을 나타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빈도는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 따돌림 가해-피해 집단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의 정도

초등학교의 집단 따돌림 유형에 따른 빈도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해경험만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7%, 피해경험만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23.8%, 가해-피해경험이 동시에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25.9%, 가해와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는 전체의 43.3%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의 정도 (N=374)

집단분류	N(%)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	26(7.0)
피해경험만 있는 집단	89(23.8)
가해-피해경험 모두 있는 집단	97(25.9)
피해, 가해경험 모두 없는 집단	162(43.3)

2.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의 4가지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59, p=0.19$).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 (N=374)

변수(n)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평균(표준편차)	F(p)
가해경험 집단(26)	146(18.31)	1.598(0.190)
피해경험 집단(89)	150(25.37)	
가해-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97)	145(23.58)	
피해, 가해경험 모두 없는 집단(162)	150(24.63)	

3.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또한 전체 사회적 지지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59, p=0.19$).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중 친구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4.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표 4-1, 4-2>와 같다. 가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가해경험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가해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피해경험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피해경험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와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또한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피해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3>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험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N=374)

변수	사회적 지지(부모)	사회적 지지(친구)	사회적 지지(교사)	전체 사회적 지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해경험 집단(26)	3.09(0.46)	2.97(0.62)	3.32(0.63)	3.12(0.58)
피해경험 집단(89)	3.15(0.41)	2.77(0.49)	3.32(0.76)	3.08(0.68)
가해-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97)	3.12(0.44)	2.82(0.64)	3.40(0.55)	3.11(0.52)
피해, 가해경험 모두 없는 집단(162)	3.11(0.45)	2.99(0.53)	3.58(0.46)	3.22(0.49)
F	.194	3.925	2.228	1.59
P	.901	.009*	.085	0.19

<표 4-1>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 (N=374)

	아빠-자녀간 의사소통	엄마-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가해경험 집단	-.172	-.025	-.134	-.536**
피해경험 집단	-.125	-.310**	-.219	-.328**
가해-피해경험 모두 있는 집단의 가해경험	-.194	-.210	-.199	-.261*
가해-피해경험 모두 있는 집단의 피해경험	-.134	-.204	-.168	-.201

* p<.05, **p<.01

<표 4-2> 가해-피해경험 모두 있는 경우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상관관계 (N=374)

	가해-피해경험 모두 있는 집단의 피해경험
가해-피해경험 모두 있는 집단의 가해경험	-.343**

* p<.05, **p<.01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의 경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가해경험만 사회적 지지와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적어질수록 가해경험을 더 많이 하게됨을 의미한다.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간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가해경험을 많이 할 수록 피해경험이 적어지고 반대로 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가해경험을 적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 의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해경험만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7%, 피해경험만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23.8%, 가해-피해경험이 동시에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25.9%, 가해와 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는 전체의 43.3%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이 있는 전체 대상자는 32.9%, 피해경험이 있는 전체 대상자는 49.7% 였다. 이를 다음의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7)의 조사결과에서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48.1%가 따돌림 가해 경험이 있고 30%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춘재와 박금주(2000)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31.9%가 따돌림 경험이 있으며 28.6%가 따돌림을 당한 적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경험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며 피해경험은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춘재 등(200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연령이 더 어리고 본 연구와 조사 방법상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Wolke, Woods, Bloomfield 및 Karstadt(2000)는 1639명의 6-9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3%가 직접적인 따돌림을 가했으며 피해만 당한 대상자는 39.8%,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대상자는 10.2%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국내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피해경험은 더 많고 가해경험, 가해와 피해의 동시경험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집단 따돌림의 4가지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따돌림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영역 중 친구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후기로 갈수록 가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된다고 볼 때(강민주, 전경숙,1995) 친구의 지지가 더 의미 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가해나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의 친구지지 평균점수가 2.99(0.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해 경험만 있는 집단의 경우도 2.97(0.6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춘재와 박금주(2000)의 연구에서 친구지지 영역에서 가해집단이 정상집단 만큼이나 높게 자각하고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해집단은 일반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인기가 있다는 것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경험만 있는 집단의 친구 지지 평균점수가 2.77(0.49)로 가장 낮아 피해집단은 친구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각하였다. 따돌림 피해자들의 경우 자긍심이 매우 낮거나 위축되어 있으며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낮은 가치감, 친구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로 인해 소극적인 친구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이러한 면이 가해자로부터 또다시 공격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돌림 가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피해경험은 엄마-자녀간 의사소통과

-0.310**($p < .01$)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소춘(1999)은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학급이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따돌림의 피해집단의 경우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모, 형제 자매들에 의해 비평 당하거나 간과 당하거나 축출 당해 본 경험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구본용, 1997). 이에 어머니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해경험,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각각 -0.536 ($p < .01$), -0.328 ($p < .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가해와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의 가해경험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0.261 ($p < .01$)의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적어질수록 가해경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따돌림의 가해집단과 피해집단 모두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따돌림 현상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는 양희정(2000), 한미현(199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간에 -0.343 ($p < .01$)의 역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가해경험이 증가할수록 피해경험은 감소하며 반대로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가해경험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Kumpulainen 등(1998)은 직접적인 따돌림을 당한 집단은 심리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더 외향적이고 과다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율이 가장 높았고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혼란을 겪게되며 이렇게 볼 때 좀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완충효과 작용의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대처 능력에 중요한 만큼 따돌림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있어서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따돌림의 현상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 배려의 부족, 몰인정으로 인해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 하나의 놀이처럼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인성교육이나 사회성 교육뿐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교육의 가치를 한번쯤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돌림은 단순히 아동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현상으로 보기엔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성인들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교사와 부모의 개인적으로 나서는 중재들은 일회적이며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따돌림의 가해, 피해의 유무에 따른 빈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규명하고 따돌림의 가해, 피해 경험과 가족-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1.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빈도의 결과는 가해경험만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7%, 피해경험만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23.8%, 가해-피해경험이 동시에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25.9%로 나타났다.
2. 집단 따돌림의 가해,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친구의 지지 ($F=3.925$, $p=.009$)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친구지지의 점수가 2.77(0.49), 정상집단의 평균점수는 2.99(0.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의 경우도 2.97(0.62)로 두 번째로 높았다.
3. 집단 따돌림의 가해, 피해경험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가해 경험 혹은 피해경험만 모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각각 -0.536 ($p < .01$), -0.328 ($p < .01$)의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도 사회적 지지와 -0.261 ($p < .01$)의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해경험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0.310 ($p < .01$)의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사하는 횡단적 연구에만 머물렀다.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선행인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가

인식한 따돌림의 가해, 피해 경험 유무를 파악하였으나 실제로 제 3자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층면접을 통해 따돌림에 대한 측정을 다원화 할 것이 요구된다.

3. 피해집단과 가해집단, 피해-가해 집단을 비교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표집에 어려움이 있고 가해, 피해 집단을 많이 찾아 표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때문에 개인의 연구보다 단체,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여 일반화의 효용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민주, 권경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7-210.

구본용 (1997).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은경 (2000).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길미 (199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춘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진영 (1992). 아동의 공감발달 및 상관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희정(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15-40.

이병두 (2001). 학교폭력 왕따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 성격과 정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 광금주 (2000). 집단 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전재천 (2000).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정세용 (1995). 부모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 문제보고서. 17

Argenbright, G. C., & Edgell, L. A. (1999). Taking a stand against bullying behavior: Helping to make our schools safer for all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Chesterfield County Public Schools, Richmond, VA.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 in 8- to 11-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 66, 447-456.

Banks, R. (1999). *Bullying in schools*. Moravia, NY:Chronice guidance Publications.

Batsche, G. M., & Knoff, H. M. (1994). Bullies and their victims: Understanding a pervasive problem in the schools. *School Psychol Review*, 23(2), 165-174.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 62, 73-78.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ng, anxiety, and aggress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23-130.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ng,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 Psychol., 4, 103-196. New York: Wiley.
- Kumpulainen, K., Raesaenen, E., Henttonen, I., Almqvist, F., Kresanov, K., Linna, S. L., Moilanen, I., Piha, J., Puura, K., & Tamminen, T. (1998). Bullying and Psychiatric Symptoms Among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 Preliminary findings. *Child Abuse and Neglect*, 22(7), 705-717(13).
- Mulrine, A. (1999). Once bullied, now bullies, with guns. *US News and World report*, 126, 24-26.
- Olew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 Olew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Roberts, W. B., & Coursol, D. H. (1996). Strategies for intervention with childhood and adolescent victims of bullying, teasing, and intimidation in school setting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30, 204-207.
- Salmon, G., James, A., & Smith, D. M. (1998). Bullying in schools: Self-reported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secondary school children. *British Medical J*, 317(7163) 924-925
- Schwartz, Mcfadyen-Ketchum, Dodge, Rettit, & Bates. (1999). early behavior problem as a predictor of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Moderators and mediators in the pathways of social risk. *J Abnormal Child Psychol*, 27(3), 191-201.
- Wolke, D., Woods, S., Bloomfield, L., & Karstadt, L. (2000).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 and relational bullying and

behavior problem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J of Child Psychol and Psychiatr* 41(8), 989-1002.

- Abstract -

Study on Bullying, Social Suppor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 Kyung Soon · Park, Sung won***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dentifying the types of bullying; describing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bullying types;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the bullying.

Method: 374 subjects were 5-6th grade students of two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We collected the data from June 10 to October 29, 2002.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 the SPSS.

Result: The 7 % of the subjects were found as bullies and another 23.8 % as victims, while 25.9 % were found as bully-victim group. The number of the victims in peer-support got less than in the normal or bully group.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score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 group were reversely-correlated with the social support. The score of victims was reversely-correlated with the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In regression analysis, the social support influenced significant effects on both the bullies and victims.

Conclusion: Findings indicated that the

* Department of Nursing, Hyecheon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Chongju Nation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identify social suppor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refore, adequate approaches for the three independent

groups of bullying are necessary.

Key words : Social support,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Bullying.